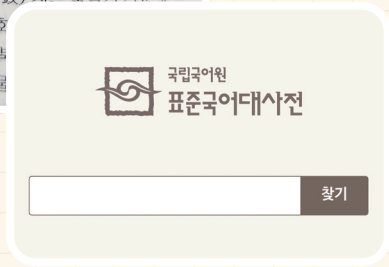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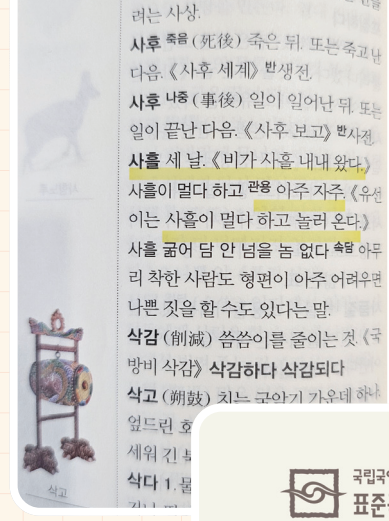


개편 | 개편하다의 ‘개’는 멍멍이가 아니라

개편은 책이나 과정, 조직 등을 고쳐 다시 엮거나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고칠 개(改), 엮을 편(編)을 써요. 회사에서는 조직 개편 등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저와 남편의 대화를 들은 아이가 “그럼 조직이 ‘개(멍멍이)+편해지는’ 거야?”라고 되물네요. 아이고, 머리아.

실제 ‘개-’는 ‘야생 상태의, 질이 떨어지는, 쓸데 없는’이란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로 쓰여요. 개떡, 개수작, 개꿈의 ‘개-’는 멍멍이란 뜻이 아니라 모두 이런 뜻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우리 말입니다.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멍멍이라는 의미가 와닿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아, 원래 뜻은 좀 알고 쓰자, 응?

개기장 들이나 숲 가장자리에 자라는 풀. 기장보다 키가 작고 이삭도 작다.
개꿈 별 뜻 없이 어수선한 꿈. 《지갑 잃어버리는 꿈을 꿨는데 개꿈이겠지?》
개편 깃털이나 강어귀에 사는 나그네. 《바탕에 갈색 점무늬가 있다. 몸 색이 얼어진다. 북검은배와 다름.》
 개과 들에 자라거나 집 가까이 자라는 갈잎나무. 이른 봄에



사흘 | 4일이니까 사흘? 그럼 3일은?

“엄마, 카페가 리모델링으로 ‘사흘’간 쉬대요. ‘사’니까 4일,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업 맞죠?” 아이의 질문에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3일은 뭘까?” “.....”

사흘은 삼일(三日)의 우리말이에요. 이 기회에 낱씨를 셀 때 쓰는 우리말을 다시 한 번 복습해볼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레, 여드레, 아흐레, 열흘! 사실 ‘사흘’의 의미를 헷갈리는 어른도 꽤 있어요. 하지만 모르면 제대로 배워야죠. 오늘은 온 가족이 모여 우리말 퀴즈 대회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모레, 글피, 그글피’의 뜻을 맞히는 사람에게 치킨 쏘다!

이지적 | 내가 쉬워 보여요?

‘이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요’란 말은 좋은 칭찬이죠? 남편이 회사의 어린 후배에게 이렇게 칭찬했다가 ‘이지’를 영어 ‘easy’로 받아들여 곤란했다고 하네요. 내가 그리 쉬워 보이냐는 반응에 분위기만 싸해졌다고 하니 참 난감합니다. ‘이지(理智)’ 적이라는 말은 용모나 언행에서 풍긴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칭찬도 생각하고 해야 하는 시대네요. @

《내 말을 듣던 철수의 얼굴이 점점이 지러졌다.》
이지적 (理智的) 지혜롭게 행동하거나 판단하는. 또는 그런 것.
이진법 (二進法) 수를 0과 1만으로 나타내는 방법.
이질 (痼疾) 똥이 자주 마르고 똥이 피나 고름이 섞여 나오는 병. 복리질.
이질적 (異質的) 성질이 서로 다른. 또는 그런 것.
이질물 산과 들의 축축한 풀속에 자라는 푸른 오물에 띄어 있고 분홍색이나